

2018년 3월 20일, 표선면 세화2리 세화2리경로당, 문순덕(김은정·정이슬) 조사.  
 김세현(남, 1936년생, 표선면 세화2리)

- 줄거리: 세화리 어느 집에서 도깨비를 모셔 부자가 되었는데, 하루는 밭에 가면서 깜빡하고 모시지 못한 바람에 집안이 망해 버렸다.

**[제보자]** 세화리는 도체비구신 모시는 디가 많아. 모시면 그렇게 부자가 뒤텔어. 모시는 할머니가 밭 가는 디 점심을 해영 가는데, 밭디 점심을 해다 놓고  
 “아이고, 나가 집에서 도체비구신 하는 디 거길 아니 뉘졌구나.”  
 부지런히 돌아와네 거기 메하는 디 밥 올리젠 보니까 집 불 붙여불젠 도체비  
 귀신이 나와네 솟강알에 후후 불을 붙었어. 그때  
 “잘못했우다.”  
 헝 밥을 올린 엇어져 불언. 구신이랑 마찬가지로.  
 근데 이제는 도체비구신이 세화1리에서 막 있다가 여러 사람 미쳐네 여기에서  
 최고 부재엿인디 다 망해가지고 씨도 엇어. 위하당 안 하니까.

- 핵심어: 도체비구신(도깨비귀신), 세화리, 밥, 부자